중국 병원 견학을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

41병동 간호사 양혜진

이번 중국 연수 및 병원 견학은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의료 시스템과 병원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방문 전에는 중국의 의료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병원을 둘러보며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는 상황에서도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방문객을 단순한 견학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류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진심 어린 환대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으며, 병원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판다 마스코트는 지역의 특색을 잘 담고 있어 매우 친근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의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외래 진료 공간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고, 다양한 진료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규모와 높은 의료 수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의료진과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동에서는 수액 주입 상태를 카메라와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환자 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우리 병원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중환자실 견학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가까이에서 상시 대기하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환자 두 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에서 환자 중심 의료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병원의 시설과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태도, 운영 철학,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벗어나 중국 의료 시스템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점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